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1:26~2:3)



내가 불붙지 않고는 남을 불붙일 수 없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최대교회를 이끌고 있는 카니발 목사의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카니발 목사는 1만 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교인들만 와도 집회장이 차고 넘칠 거란 생각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서 집회 첫 날 바닥조차 채우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맛보아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크라이나 오데사(Odessa)에 갔을 때도 동일한 경험을 했고, 멕시코 비에야르모사(Villeharmosa)에 갔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필리핀 바기오(Baguio) 집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패착은 '이초석 목사님만 모시면 당연히 차고 넘칠 것'이란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집회는 어 려웠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는 준비하지 않는 자이며,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사! 준비한 자는 삶에 근심걱정이 없습니다. 창세기 41장에는 철저히 준비한 인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두 번 연이어 같은 맥락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누구도 해몽하지 못한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는데, 이는 곧 애굽 땅에 칠 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그 후 칠 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든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는 지체하지 않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 이에 대비하라고 명합니다. 바로의 명에 따라 약관의 나이에 총리에 오른 요셉은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이 계속된 칠 년간의 소출을 각 성에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바다의 모래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창41:47~49). 넉넉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국은 물론이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국가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애굽을 부국(富國)으로, 강국(強國)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금식하며 기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물품과 군사까지 얻게 하사 52일 만에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거침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동력도 그의 아버 다윗이 성전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돈은 물론이요, 성전을 장식할 보석까지 준비했으며, 심지어는 작은 못까지도 다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하 나님의 명을 받

았 습 니 다. 아 브 라 함 은 아들과 같이 모 리아 산을 가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 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은 급히 그를 부르시고 준비하신 수양이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같이 아들과 광야에서 목이 말라 울부짖을 때 옆에 준비한 샘이 보이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창22:14). 맞 습 니 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종 육축과 채소를 준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셨습니다. 임산부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온갖 것을 준비하듯 하나님도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속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속제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요 14:3). 대충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준비하시는지 성경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21:2)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것은 '준비가 반'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김장할 때지요? 김장이라고 하면 절인 배추에 버무린 속을

넣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시장에 가서 배추와 무며 파 등을 사가지고 와서 다듬고 씻는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봐도 김장 반은 한 것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곤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나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전을 청할찌니라."(눅14:28~32). 이 말씀은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창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부만 안 하고 '목사님

이 기도해주면 좋은 대학 가겠지.' 생각한 자는 당연히 떨어진다는 뜻이고, 남들이 창업한다니까 아무 대책 없이 간판부터 거는 자는 망한다는 뜻이고, '사랑만 있으면 돼.' 하고 아무 준비 없이 결혼하면 개고생한다는 뜻이며, 선교사로 나가는 자가 그 나라 언어를 준비하지 않고 나가면 꿀 먹은 벙어리 신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부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기획 분석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셨겠습니까. "개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6:6~8).

여러분, '준비는 곧 노력'이요, '노력은 곧 부지런'입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대기업을 이끈 경제인이든, 세계적인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노력 없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누워서 탁상공론이나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회가 오면 언제나 뉘아채려고 부지런히 만반의 준비를 한 자들입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로 미래를 준비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또 결혼을 위해 결혼자금도 준비하고, 어른들은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준비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적당히 준비하면 정작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4)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은 준비한 자의 몫이다

나중에 준비하지 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공부하고, 지금 저축하고, 지금 일하세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주의 일을 하십시오.

칼은 갈아야 빛나고, 내가 불이 붙어야 남도 불붙일 수 있는 법입니다. 영·혼·육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준비하십시오. 성공의 단 열매는 철저히 준비한 자의 당연한 몫이니까요.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제사를 지내고 불상이나 구조물 앞에서 절을 하며 비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물질이나 쾌락, 배우자나 자녀 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목회를 더 집착하고 사랑 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섬기는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우상을 모두 다 제거 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기 때문입니다. 교묘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 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으로 부터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이방의 모든 신상을 버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을 만났던 벤엘로 올라가 단을 쌓은 일입니다. 그들이 발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 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패 어 주실 것임이라”(호6:1). 환난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 했던 우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이나?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우상이나? 양다리 걸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 으면 이방의 신들과 내 속에 있는 숨어있 는 우상들마저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 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에서 내가 섬기던 모든 것은 다 포기하는 것이 신부 된 자 의 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지구촌을 위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환 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앙을 점검하고 첫사랑을 회 복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가까워져 올수록 환난의 바람은 더욱 더 거세게 불어올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때 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 을 제거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신의 벤엘로 돌아가는 것이 환난을 이기는 비 결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셋!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삼 형제가 살고 있는 마을 산속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샘물이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물을 마시려 다가 죽었다. 왜냐하면 그 샘물을 먹으 려면 동굴에 들어가서 절대로 말을 해 서는 안 되고, 만약 말을 하면 죽었기 때 문이다. 바보 삼형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에 동굴에 갔다. 동굴에 들 어간 큰형이 동생을 보며 걱정이 돼서 말했다. “여기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러자 큰 형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 다. 형이 죽은 것을 보고 놀란 둘째가 “말 하지 말라니까.”라고 말했다 그만 또 죽 고 말았다. 그러자 셋째는 엉엉 울며 “어 뻑해! 형들이 다 죽었네.” 하고 죽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삼형

제의 시신이라도 거둬오려고 동굴로 갔 다. 동굴에 들어간 이장이 동네 사람들 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말을 하면 절대 안 됩 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네!” 대답 하고는 모두 죽고 말았다.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세 치 혀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하셨겠나. 말을 아끼자. 진실은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상 대가 알게 되니까. 지혜란! 표정과 언어 의 조종기술이다.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 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 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약3:2).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게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 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1:19).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요한복음 7:37~39)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주 셧다.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으니 이 는 모두 세상에서 난 언어다. 그러나 복 음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 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언어다. 복음은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계19:13), 즉 하 나님의 생명을 입고 있는 말씀이다(레 17:11).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가진 신념은 사람을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을 수 없 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골1:13). 이 믿음 에 대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았느니라.’(롬10:17) 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 복음이 가 쳐다주는 것이 믿음이니, 복음을 받아들 이면 믿음을 갖게 되며, 믿음이 있다 함 은 복음을 받았다는 뜻과 같다. 이처럼 복음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이와 같은 복음과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 (義)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 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

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라.’(롬1:17) 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았 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 는 성경에 이들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 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 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다.’(요7:38~39).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는 성령이 임하신다. 기독교 종교인들은 그들의 교리에 따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라고 하나 이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으나 그때는 성령이 다만 외 부에서 감동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예 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다. 그 성령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이 있 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 냐?’라는 말과 같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조건이 있다. 바 로 회개다(행2:37). 율법이 있는 곳에 서는 죄가 드러나고 죄가 더한 곳에서 는 은혜가 더 풍성하다 함은 자신이 죄 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라는 의미다(롬

5:20~6:2).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배에 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강이란 것은 본래 발원지에서는 개울물에 불과하지만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폭이 넓어진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물줄 기가 처음에는 가늘게 시작하지만, 나중 에는 점점 넓어져야만 강 옆에 있는 나 무들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다(렐17:8). 시작은 잘했는데 왜 점점 좁 아지는가?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며 다 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히6:1~6) 했 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성령 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들 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 마 리아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 릎쓰고 그 섭리를 받아들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 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섭리를 받 아들이기 위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려

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 오를 해야 한다. 십자가에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부분 이 전혀 없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 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을 받 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 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롬 8:16~17).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가 아들을 보내 사 말씀을 알게 하셨고(요12:49~50), 아들은 이를 순종하셔서 인류에게 구원 이 되셨으니(마20:28), 우리가 예수 그 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요17:3). 이러한 확 인과 그 증거를 성령이 주셨으며 또 인 (印)치신다(고후1:21~22). 성령은 관념 의 존재가 아니요 실존으로서 오늘날 에도 친히 나타내시고 증거 하신다(행 19:2).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 도 못하나(요14:17) 그러나 예수를 믿 는 자에게는 반드시 임하시는 성령이시 다(요7:38). 그는 보혜사로서 인간의 연 약함을 친히 도와주신다. 성령은 주님의 약속이며(롬8:26~27)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도의 믿음이다.

박덕규 목사

마음을 지키는 방법

열세 살 때 무척 싫어하던 교회 오빠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구였지만 저보다 나이가 다섯 살 많았던 터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죠. 그 오빠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언니와 언니 친구에게서 귀동냥으로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잘난 척한다는 등, 별로라는 등 가벼운 험담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벼운 흥이라도 매주 옆에서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도 미움이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외출했고 혼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교회 언니가 무거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오빠가 사고를 당해 하늘나라에 갔다고요. 부모님 오시면 말씀드리라며 장례식장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주저앉아 오열했죠.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했기에 괴로웠고,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더는 그럴 수 없음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시간을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누군

가를 미워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살겠다고.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과 싫은 선생님이 꼭 있었으니까요. 친한 친구들과 모이면 자연스레 누군가를 험담하게 되었죠. 그러고 돌아온 날은 또 회개하고, 친구를 만나면 또 홍보고. 그렇게 반복되는 나날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그날의 회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이 누군가를 홍보하면 말을 보태기 보다는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 했고, 사람들의 단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싫은 점보다는 좋은 점을 말하려고 노력했고요. 잘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운동처럼 계속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4년이 흘러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되자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급의 모든 친구와 사이가 좋았지요. 가끔 누군가의 싫은 면이 보여

도 입술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좋은 면만 말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정말 좋은 면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입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도 입술을 지켜 말로 내뱉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내뱉으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술을 지켜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 마음을 지키는 습관을 어렵사리 갖게 되었지만, 스무 살이 되고 사회에 나가고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입술을 지키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견고한 성벽이 작은 험담과 가벼운 흥으로 인해 구멍이 나고 무너진 적이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요즘은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세로 먼저 입술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내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신은혜

Good News

세상에는 짝퉁이 많습니다. 명품일수록 이윤이 많이 남으니 비슷하게 흉내를 낸 짝퉁들이 만들어져 암암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기독교도 그래서 그런지 이단이나 유사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천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화도 위조지폐가 많이 통용되고 있어서 은행마다 위

조지폐를 가려내는 감별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별사들은 위조지폐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훈련할 때 진품을 가지고 손의 감각을 익힌다고 합니다. 진짜를 계속 만지다 보면 가짜가 섞여 있을 때 금방 손끝에 느낌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가짜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엡2:8).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하

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 믿기질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영생에 이르는 길 ::

나의 동역자 조건

예배를 드릴 때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새벽이슬처럼 싱그럽고 에너지가 넘침을 느낍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실까요?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에게도 늘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대입, 커서는 취업으로, 다음으로 배우자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저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배우자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외모였으면 좋겠다.’,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바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예수를 잘 믿는 배우자를 1순위로 꼽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성을 배우자

로 찾고, 또 그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중심교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과는 달리 모든 교회가 항상 뜨겁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천이어도 신앙이 맞지 않아 좌절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뜨겁기 때문에 배우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대입시험을 볼 때 서울대학교와 그 외 다른 대학교를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면 그는 망설이지 않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겁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최고의 대학교이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최고의 영적 배움터인 예수중심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누군가가 말할 때 흔들리거나 갈등을 할까요? 그 누군가가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말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

신 대로 상황평준화는 있어도 하향평준화는 없는데요. 오히려 연인에게 같이 우리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이 서로의 사랑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마저 뛰어넘을 정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를 보고 그것을 통해 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8:18)라는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신앙이 맞지 않는 연인과의 헤어짐으로 잠깐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장차 영원한 천국의 상급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한없는 기쁨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연인과의 만남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김대화

:: 빛이 되리라 ::

우연과 사인

20여 년 전이었다. 당시 핸드폰이 없었고 누군가와 긴급히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다.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구 차량을 탑승해야 했다. 집회는 내가 처음 간 낯선 곳에서 열렸었고, 모르는 지역에서 차량 위치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차량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한 10~20분간 돌아다녔을까? 차량은 너무 많고 정확한 차량 위치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다. 내 앞에 양 갈림길이 나왔는데, 좌우 양쪽으로 끝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보였고, 양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거기서 지체만 할 수 없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교구 식구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차를 찾아야 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잠시 기도했으나 아무 사인이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했다. ‘하나님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왼쪽 길로 발을 내딛는 순간 보이지 않던 거미줄에 내 얼굴이 걸렸다. ‘뭐지? 왜 갑자기 거미줄이?’ 이것은 우연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가, 순간 고민하다 반대 길로 가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우측 길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우측 길 끝에서 마침내 교구 차량을 만나게 되었다. 거미줄에 걸린 것을 우연의 일이라 생각하고 왼쪽 길로 갔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 끝도 없던 길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아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무뎌서 우연으로 치부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본다. 수많은 다른 주파수에 묻혀서 정작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반성한다. 예민하게 우리를 가다듬고 충만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란다. 장명훈 집사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썩은 생각을 바꾸면
황무지도 장미꽃밭으로 변한다